



*사진 출처 : AI에서 생성한 이미지

numbers

vol. 349 | 2026.9.8.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4. 인비저블 엑시트: 청소년의 교회 이탈
교회 이탈 학생, 예배/설교가
지루해서 교회 떠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세계인의 영성과 종교 인식
2. 미국의 종교 구성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회 이탈 학생, 예배/설교가 지루해서 교회 떠난다!

해마다 교회학교 학생 수는 줄고,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예배 자리를 지키는 청소년들의 내면에도 이탈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사)꿈이 있는 미래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출간한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에 따르면, 교회 출석 중고생의 41%는 지난 1년 사이 교회 이탈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는 교회 어른(사역자, 교사, 부모)은 10%대에 불과해 현장의 온도 차가 매우 컸다. 또한 실제 교회 이탈 학생들이 꼽은 이탈 이유는 ‘지루하고 의미 없는 예배’(38%)였는데 반해, 교사나 사역자들은 이를 ‘학업 부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학생과 교육자 간 큰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넘버즈 349호〉에서는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려 하는지, 이탈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다음세대를 붙잡기 위한 관계적·교육적 대응책과 실질적인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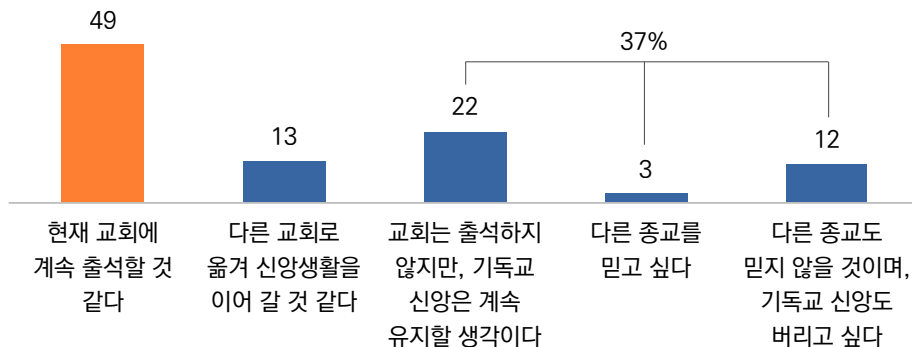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교회 이탈 학생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만 14~19세 과거 개신교를 믿었던 현재는 타종교 /무종교인 학생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200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 성인된 후 '교회 떠날 것'!

- 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인이 된 후 신앙생활 전망을 묻은 결과, '현재 교회에 계속 출석할 것 같다'는 49%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 '다른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이어 갈 것 같다'는 13%로 나타나, '교회 출석 유지 의향'을 밝힌 비율은 전체의 62%였다.
- 반면,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22%)하거나 '타 종교로 전환'(3%) 혹은 '무종교인으로 전향'(12%) 계획이라 응답한 '교회 이탈 예상군' 비율은 37%였다. 현재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은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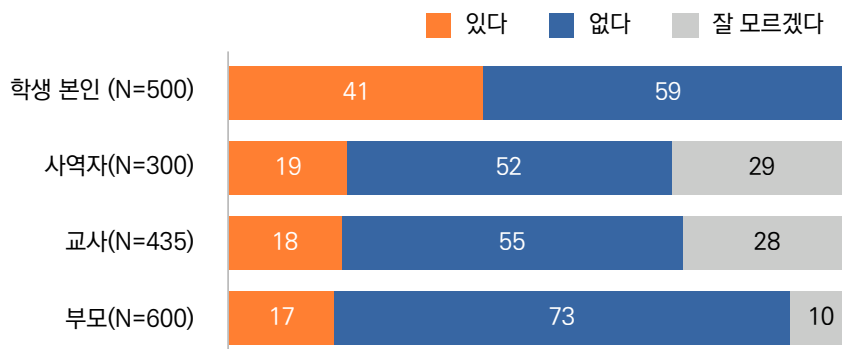
[그림] 향후 신앙생활 전망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교회 출석 중고생 10명 중 4명이 교회 이탈 고민 중!

- 현재 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 사이 교회 이탈 고민 여부를 묻은 결과, 학생의 41%가 '이탈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회 어른들의 체감도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 교회학교 학생이나 자녀 중 '교회 이탈 고민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역자 19%, 교사 18%, 부모 17%로 모두 10%대에 그쳤다.

[그림] 교회 이탈을 고민하는 학생이 있는지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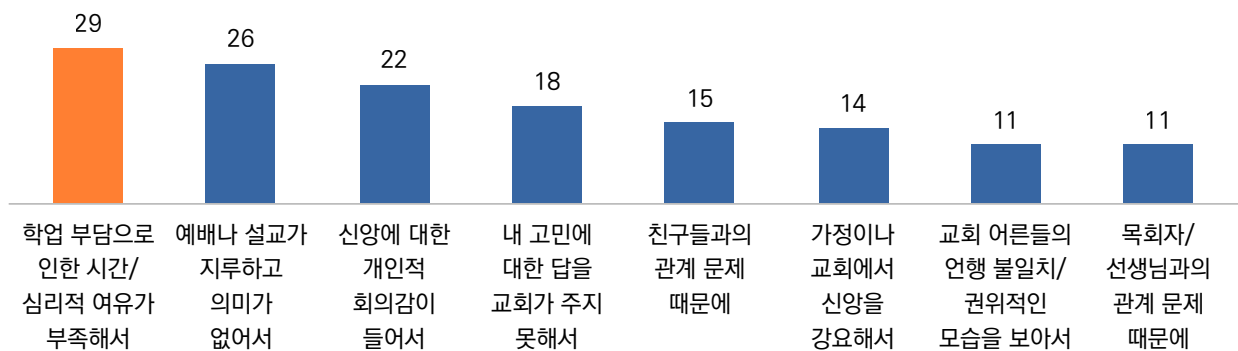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학업 부담’과 ‘예배 지루함/의미 부재’ 때문에 교회 떠날 생각했다!

- 교회 출석 학생 중 교회 이탈을 고민했던 학생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1+2순위), ‘학업 부담’(29%)과 ‘예배 지루함/의미 없음’(26%)을 각각 1,2순위로 지목했다.
- 외부적 요인인 학업 부담(1위) 외에도 예배·설교의 의미 부재, 신앙에 대한 회의감, 고민에 대한 답의 부재 등 신앙·영적 요인(2~4순위)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현 교회가 청소년들의 영적 갈급함과 삶의 고민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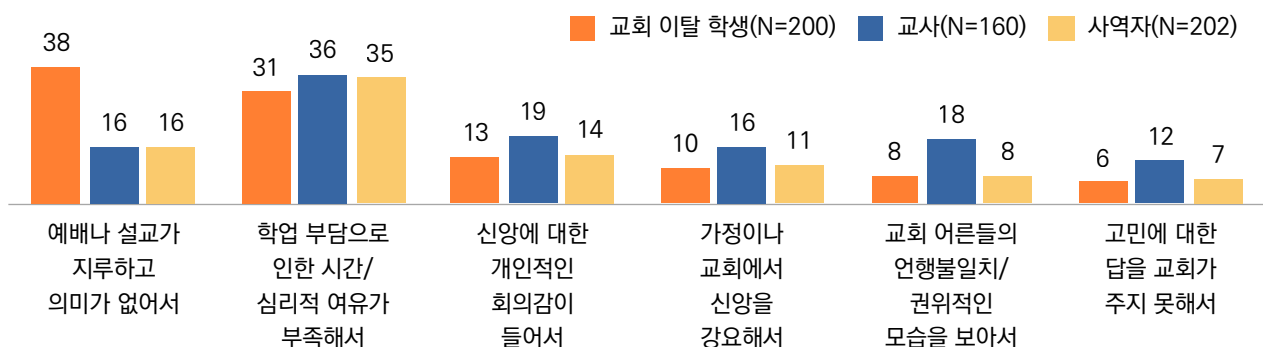
[그림] 교회 이탈의향 이유 (교회 이탈 의향 있었던 학생, 상위 8개, 1+2순위, N=205, %)



교회 이탈 학생, 예배/설교가 지루해서 교회 떠난다!

- 교회 이탈 학생이 꼽은 결정적 이탈 이유(1+2순위) 1위는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서’(38%)로 나타났다.
- 반면, 교사와 사역자들은 이탈 이유 1위로 ‘학업 부담’을 가장 높게 지적해 학생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38%)는 응답은 단순히 전달방식이 지루한 문제를 넘어, 설교(메시지)가 학생 본인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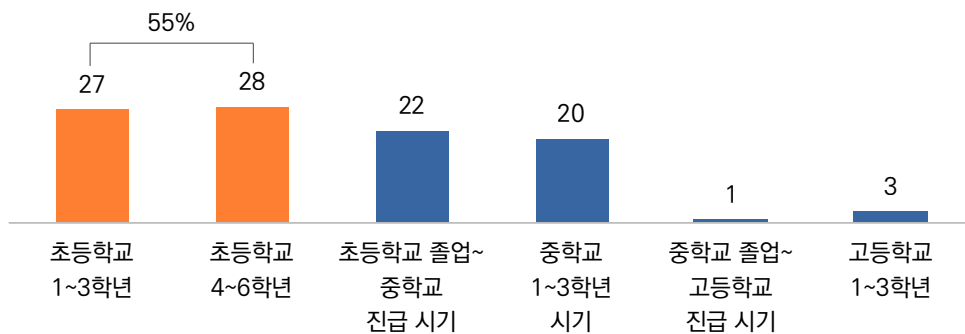
[그림] 학생의 교회 이탈 이유 (1+2순위, 학생기준 상위 6개, 중복응답, %)



교회 이탈 시점,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때'!

- 교회를 떠난 시점을 묻은 결과, 교회 이탈 학생의 절반 이상(55%)이 '초등학교 때'(초1~3학년 27%, 초4~6학년 28%)라고 응답했다.
- 범위를 '중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면 77%에 달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 이미 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 고학년 및 중학 진학 시기에 맞춘 이탈 예방 체계/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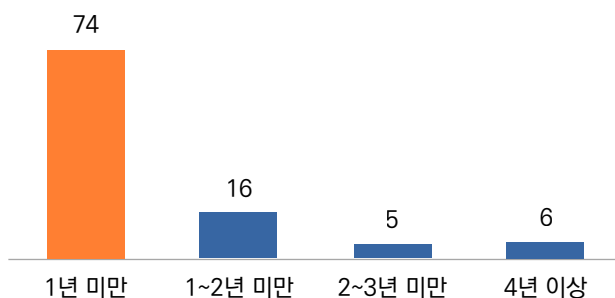
[그림] 교회 이탈 시점 (교회 이탈 학생, N=200, %)



교회 이탈 중고생 4명 중 3명, 결심 후 이탈까지 1년이 채 안 걸렸다!

- 교회 이탈 학생들에게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진 때부터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묻은 결과, '1년 미만'을 꼽은 비율이 74%였다. 4명 중 3명은 교회 이탈까지 1년이 채 안 걸린 셈이다.
-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실제 이탈로 이어지는 현상은, 아이들이 교회에 마음 둘 곳(친구, 교사, 사역자 등)이 부재하거나, 적극적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이탈 작성 후 실제 교회 이탈까지 걸린 시간 (교회 이탈 학생, N=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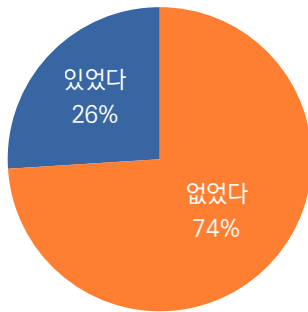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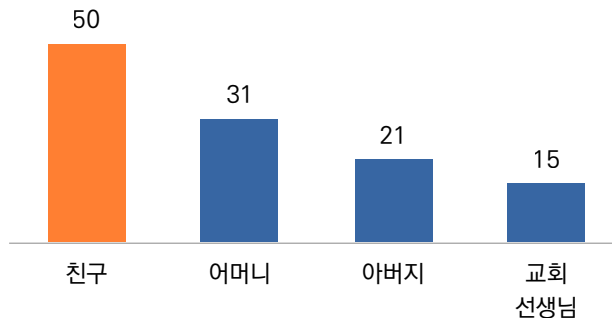
교회 이탈 중고생 74%, 이탈 당시 ‘고민 나눌 사람 없었다’!

- 교회 이탈 학생 대상으로 이탈 당시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었더니 ‘없었다’는 응답이 74%로 10명 중 7명 이상에 달했다. 반면 ‘있었다’는 26%에 그쳐, 상당수 학생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이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탈 당시 고민을 나누었더라도 그 대상은 ‘친구’(50%)가 가장 많아, 청소년들이 교회 이탈이라는 중대한 고민을 할 때 영적·정서적 멘토가 되어줄 교회 내 어른(선생님 15%)과의 소통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림] 이탈 당시 고민 나눌 사람 여부
(교회 이탈 학생, N=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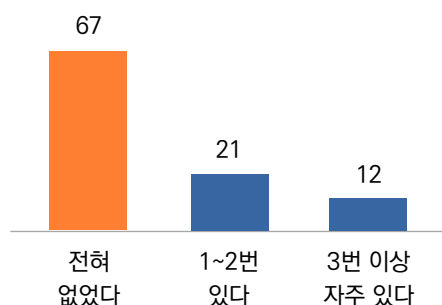
[그림] 이탈 당시 고민을 나눈 대상 (교회 이탈 당시 고민 나눌 대상이 있었던 학생, N=52, 중복응답, 상위 4개, %)



이탈 당시 사역자/교사의 심방, 3명 중 2명은 ‘전혀 없었다’!

- 교회 이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나가지 않았을 당시 사역자나 교사의 심방(전화, SNS, 대면) 경험을 묻은 결과, ‘전혀 없었다’가 67%로 3명 중 2명꼴에 달했다. 반면 ‘1~2번 있다’는 21%, ‘3번 이상 자주 있다’는 12%에 그쳤다.
- 이탈 시 교회의 연락이 없다는 비율이 67%라는 것은 현재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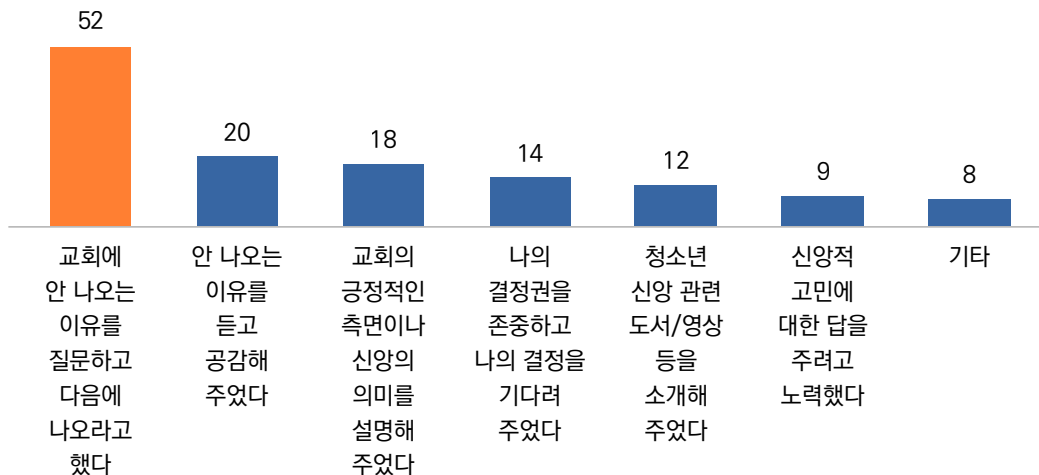
[그림] 이탈 당시 사역자/교사의 전화/SNS/대면 심방 경험 (교회 이탈 학생, N=200, %)



교사/교역자 심방, 단순한 출석 독려 수준에 그쳐

- 교회 이탈 시 사역자/교사의 심방을 경험한 학생에게 주된 심방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질문하고 다음에 나오라고 했다'가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안 나오는 이유를 듣고 공감해 주었다'(20%), '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신앙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18%) 순이었다.
- 이는 심방이 이루어지더라도 깊이 있는 공감이나 영적 고민 해결보다는 단순한 출석 독려(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그림] 교사/사역자 심방시 심방내용 (이탈 당시 심방 받은 학생, N=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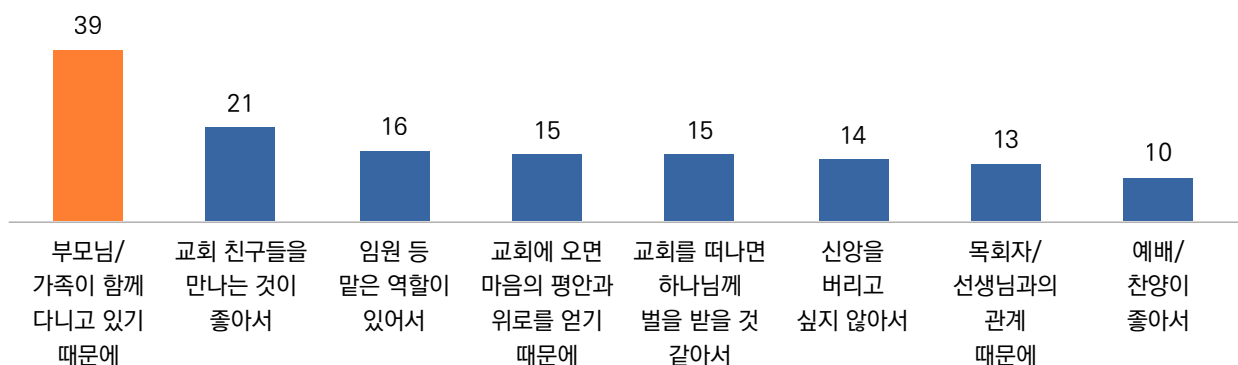
04

[교회 청소년 이탈 방지를 위한 과제]

이탈 고민에도 실제 교회 떠나지 못하는 이유, '부모님/가족'!

- 교회 이탈 의향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1+2순위)를 묻은 결과, '부모님/가족이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가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교회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21%), '임원 등 맡은 역할이 있어서'(16%) 등의 순이었다.
- 가정과 친구 관계가 학생들의 교회 이탈을 막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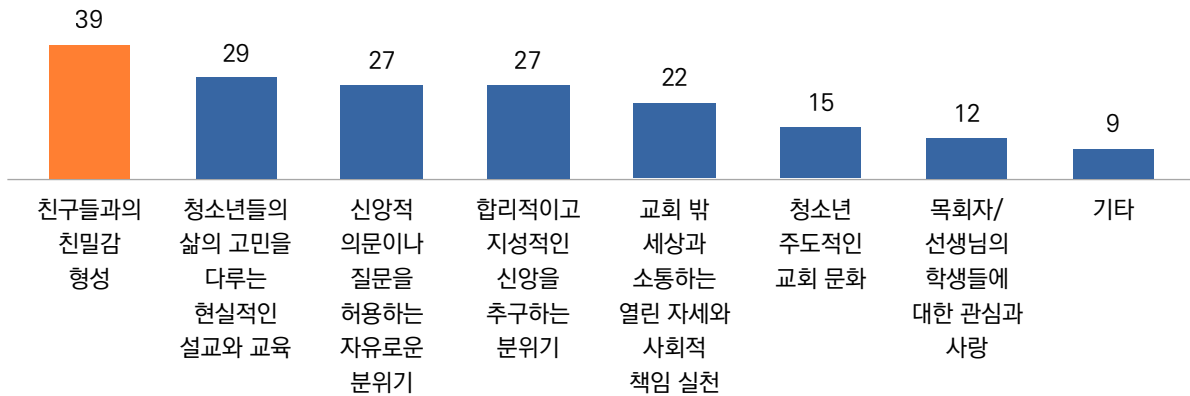
[그림] 교회를 이탈하지 않은 이유 (교회 이탈 의향 있었던 학생, 상위 8개, 1+2순위, N=205, %)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려면, ‘친구관계’와 ‘삶·신앙 고민 다루는 교육’ 시급!

-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가장 시급히 변화해야 할 점(1+2순위)으로 ‘친구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청소년들의 삶의 고민을 다루는 현실적인 설교/교육’(29%), ‘신앙적 의문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27%),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위기’(27%)가 뒤를 이었다.
-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교회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예배/설교의 개선과 함께 ‘친구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 마련, ‘학생들의 삶의 고충과 신앙적 고민을 다루는 교육과 토론의 장’을 구축하는 것이 교회의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림]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시급히 변화해야 할 점 (교회 이탈 학생, 1+2순위, N=200, %)



이번호 요약

1.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 성인된 후 '교회 떠날 것'!

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인이 된 후 신앙생활 전망을 묻은 결과,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22%)하거나 '타 종교로 전환'(3%) 혹은 '어떤 종교도 믿지 않겠다'(12%)고 응답한 '교회 이탈 예상군' 비율은 37%였다. 현재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1명 이상은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교회 이탈 학생, 예배/설교가 지루해서 교회 떠난다!

교회 이탈 학생이 꼽은 결정적 이탈 이유(1+2순위) 1위는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서'(38%)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와 사역자들은 이탈 이유 1위로 '학업 부담'을 가장 높게 지적해 학생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3.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려면, '친구관계'와 '삶·신앙 고민 다루는 교육' 시급!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가 가장 시급히 변화해야 할 점(1+2순위)으로 '친구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청소년들의 삶의 고민을 다루는 현실적인 설교/교육'(29%), '신앙적 의문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27%)가 뒤를 이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멘토링 사역 멘토링 목회 (나침반사, 박건 저)

관련 성경 구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목회 적용점

청소년의 '인비저블 엑시트(Invisible Exit)'는 출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신앙 이탈의 위험을 보여준다. 교회 출석 중고생의 41%가 지난 1년 사이 이탈을 고민했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역자·교사·부모는 10%대에 그쳤다. 이탈을 결심한 뒤 떠나기까지 1년 미만도 74%에 달했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사역자/교사가 청소년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Life on Life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이탈 학생들이 꼽은 핵심 원인은 '지루하고 의미 없는 예배/설교'(38%)였으나, 교사·사역자들은 이를 '학업 부담'(각각 36%, 35%) 탓으로 돌려 학생의 영적 고민과 어른들의 환경적 진단 사이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사역자와 교사가 학생들과 충분히 교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 따라서 교회학교는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교사와 사역자가 학생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고민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공유하는 관계 중심 사역'(Life on Life)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초등 고학년 시기부터 '관계 중심의 조기 이탈 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탈 학생의 55%가 초등학 교 때 교회를 떠났고, 74%는 이탈 당시 고민을 나눌 어른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탈을 막은 가장 큰 요인은 부모/가족(39%)과 친구(21%)였다. 따라서 교회가 학생들의 결석 시에만 연락하는 형식적 출석 독려(52%)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초등 고학년부터 학생들의 신앙과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사·교역자와의 영적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제적 돌봄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1. 세계인의 영성과 종교 인식



2. 미국의 종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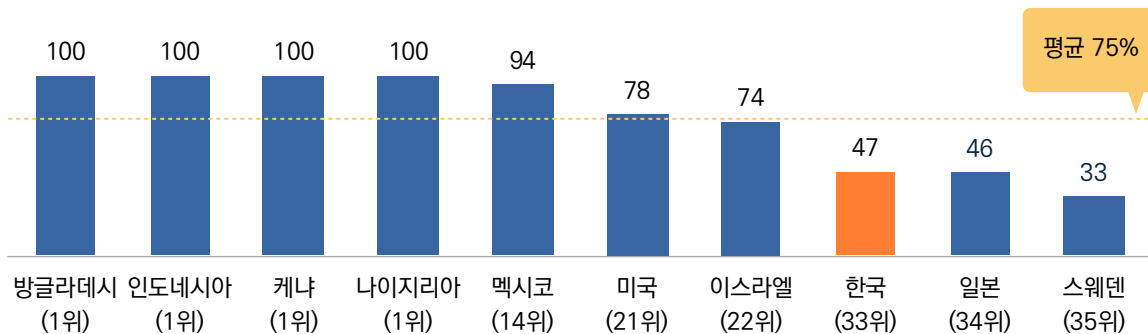




‘신을 믿는다’, 한국인은 35개국 중 하위권(33위)!

- 세계 3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세계인의 다양한 종교적, 영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작년 5월 퓨리서치에서 발표됐는데, 일부 결과를 살펴본다.
- 신에 대한 믿음을 물은 결과, ‘신을 믿는다’는 응답은 평균 75%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케냐, 나이지리아는 응답자 전원이 ‘신적 존재’를 믿는다고 답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47%, 33위)과 ‘일본’(46%, 34위)은 35개 조사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림] 주요 국가별 ‘신에 대한 믿음’ (35개국, ‘믿는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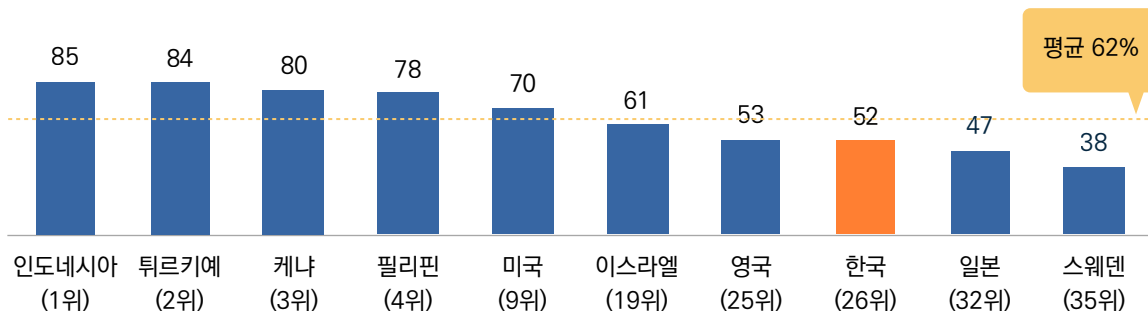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퓨리서치센터), Believing in Spirits and Life After Death Is Common Around the World(영혼과 사후 세계를 믿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다), 2025.05.06.(6개 대륙 36개국 성인 대상/ 미국 외 조사: 성인 41,503명, 전화/대면/온라인 설문(나라별 상이), 2024.01.05.~05.22., 미국 조사: 성인 11,201명(2023년), 12,693명(2024년),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31.~06.06/2024.02.13.~02.25.)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이슬람 국가에서 강해!

-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한국인은 52%가 ‘그렇다’(아마도+확실히 있다고 응답해 35개국 평균(62%)보다 10%p가량 낮았다.
-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대표적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85%)와 ‘튀르키예’(8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주요 국가별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35개국, ‘아마도+확실히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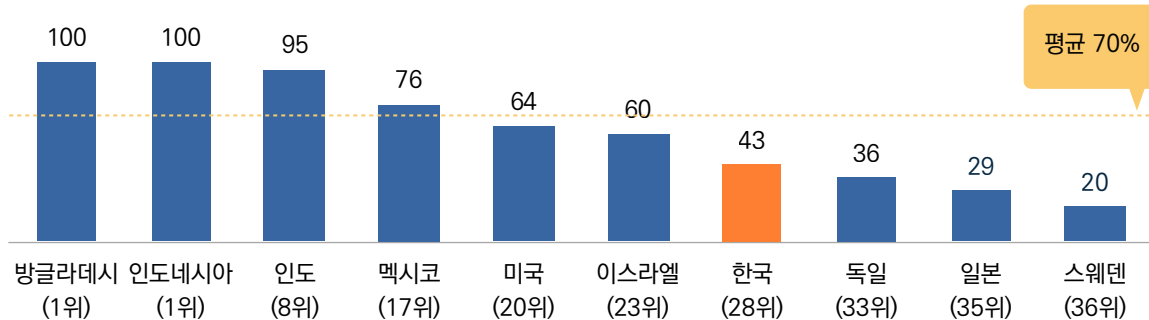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퓨리서치센터), Believing in Spirits and Life After Death Is Common Around the World(영혼과 사후 세계를 믿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다), 2025.05.06.(6개 대륙 36개국 성인 대상/ 미국 외 조사: 성인 41,503명, 전화/대면/온라인 설문(나라별 상이), 2024.01.05.~05.22., 미국 조사: 성인 11,201명(2023년), 12,693명(2024년),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31.~06.06/2024.02.13.~02.25.)

*4점 척도

종교가 삶에서 중요한 국가,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공동 1위!

-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묻은 결과, 36개국 평균 70%가 '중요하다'(매우+약간 중요)고 응답했다.
- 국가별로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 역시 주요 이슬람국이다. 반면 한국(43%, 28위)을 비롯해 독일(36%), 일본(29%), 스웨덴(20%) 등 유럽 및 동아시아 주요 선진국들은 하위권에 위치해 대조를 이뤘다.

[그림] 주요 국가별 '종교의 중요성' (36개국, '매우+약간 중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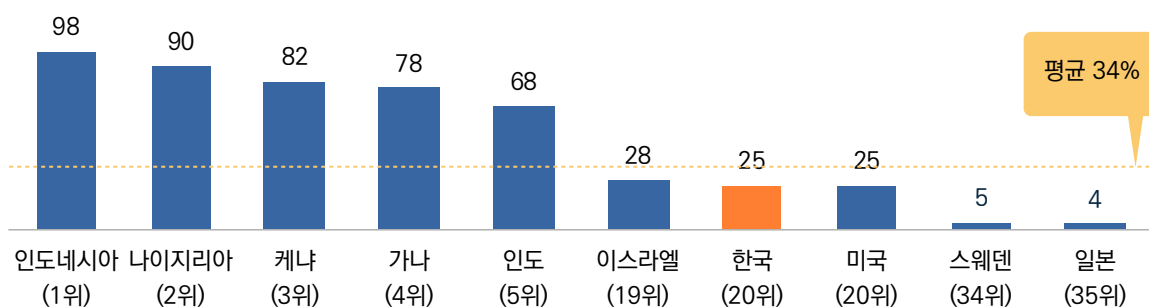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퓨리서치센터), Believing in Spirits and Life After Death Is Common Around the World(영혼과 사후 세계를 믿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다), 2025.05.06.(6개 대륙 36개국 성인 대상/ 미국 외 조사: 성인 41,503명, 전화/대면/온라인 설문(나라별 상이), 2024.01.05.~05.22., 미국 조사: 성인 11,201명(2023년), 12,693명(2024년),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31.~06.06/2024.02.13.~02.25.)

*4점 척도

주 1회 이상 종교 예배 참석,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우 활발!

- 주 1회 이상 종교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지 묻은 결과, 35개국 평균은 34%로 집계됐다. 세계인 3명 중 1명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또한 상위 5위권까지 보면 5개국 중 3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나이지리아, 케냐, 가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종교 활동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준다.
- 반면 한국과 미국은 25%(공동 20위)에 그쳤고, 스웨덴(5%)과 일본(4%)은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그림] 주요 국가별 '종교 예배 참석' (35개국, 주 1회 이상*, %)



※출처 : Pew Research Center(퓨리서치센터), Believing in Spirits and Life After Death Is Common Around the World(영혼과 사후 세계를 믿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다), 2025.05.06.(6개 대륙 36개국 성인 대상/ 미국 외 조사: 성인 41,503명, 전화/대면/온라인 설문(나라별 상이), 2024.01.05.~05.22., 미국 조사: 성인 11,201명(2023년), 12,693명(2024년), 온라인 설문조사, 2023.07.31.~06.06/2024.02.13.~02.25.)

*설문 보기는 다음과 같음 : 매일, 주 2회 이상, 주 1회, 월 1~2회, 일 년에 몇 번, 그보다 가끔, 전혀 안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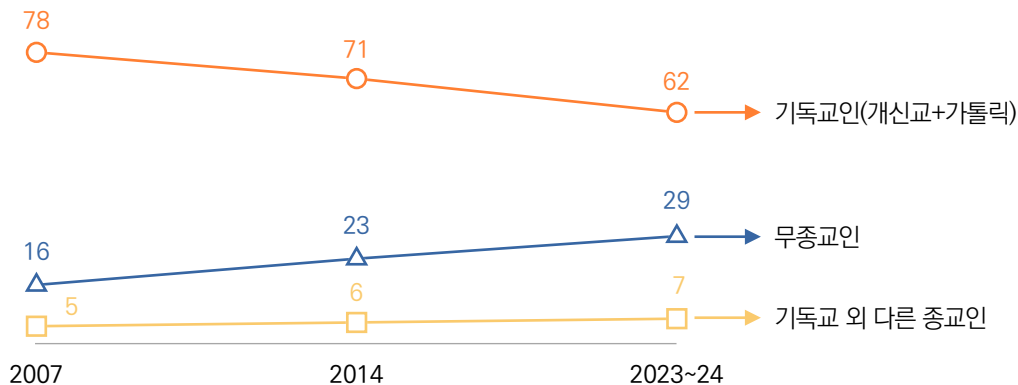


[미국의 종교 구성]

미국 기독교인 비율, 2007년 78%→2023~24년 62%로 감소세 지속!

- 미국의 종교 구성 변화 추이를 퓨리서치의 '미국 종교 경관 연구(Religious Landscape Study)' 가장 최신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다. 미국 성인 기독교인(개신교+가톨릭) 비율은 2007년 78%에서 2014년 71%, 2023~24년 62%로 지속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 반면 '무종교층' 비중은 2007년 16%에서 2023~24년 29%로 16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한국은 2025년말 기준 종교인 39%, 무종교인 61%(한국 갤럽)이다.

[그림] 미국 종교 구성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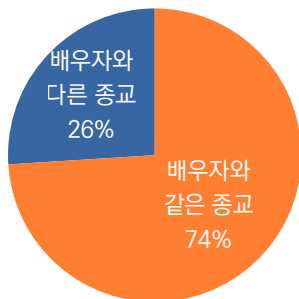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퓨리서치센터), Decline of Christianity in the U.S. Has Slowed, May Have Levelled Off(미국 기독교 인구 감소세는 둔화되었고,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26.(각 연도별 종교 경관 연구 참조, 미국 성인 36,908명, 온라인/우편/전화 설문조사, 2023.07.17. ~2024.0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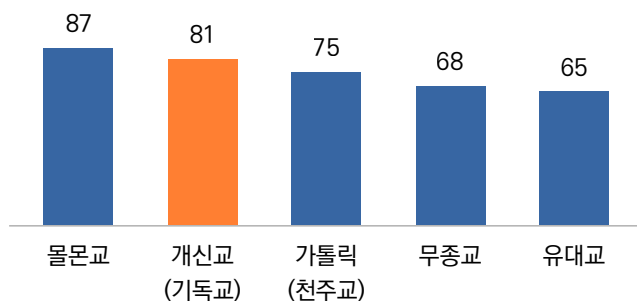
미국 성인 기혼자 4명 중 3명, '배우자와 종교 같다'!

- 미국 성인 기혼자 대상으로 배우자의 종교가 자신과 같은지를 물었다. 그 결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74%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 종교별로 보면 '몰몬교인'(87%)이 배우자가 같은 종교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개신교인'(81%), '가톨릭인'(75%), '무종교인'(68%), '유대교인'(65%) 순으로 조사됐다.

[그림] 배우자의 종교 (미국 성인 중 기혼자)



[그림] 종교별 '배우자와 같은 종교'인 비율* (미국 성인 중 기혼자, %)



※출처 : Pew Research Center(퓨리서치센터), Decline of Christianity in the U.S. Has Slowed, May Have Levelled Off(미국 기독교 인구 감소세는 둔화되었고,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26.(각 연도별 종교 경관 연구 참조, 미국 성인 36,908명, 온라인/우편/전화 설문조사, 2023.07.17. ~2024.03.04.)

*무슬림, 불교, 힌두교도 등은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혼인 패턴 분석 못함.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74호 (2026년 9월 1주)

- 선호 장래 정치 지도자, 행정수도/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사회 일반

지난해 초혼부부 5쌍 중 1쌍은 '연상녀·연하남'

연합뉴스_2026.9.3.

읍·면 사는 여성 10명 중 6명 “결혼 생각 없어”...7명은 “결혼하면 이사”

매일경제_2026.8.27.

빛 가장 많은 40대, 위험한 빛은 60대...뒤집힌 '부채 지도'

국민일보_2026.9.6.

선진국 집값 식는데 한국만 '역주행'... 서울부터 다시 뜨겁다

국민일보_2026.8.31.

“한국서만 할 수 있는 경험” DMZ 관광객 10명 중 8명 외국인

조선일보_2026.9.1.

[그래픽] 국민의료비 추이

연합뉴스_2026.9.1.

국민 10명 중 7명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정책 찬성"

연합뉴스_2026.9.1.

[기획] 쉬었는데 왜 개운하지 않을까 - 여가시간 조사로 본 '쉬지만 불안한 20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9.2.

2026 '친구'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9.1.

아동 · 청소년 · 청년

"실업 청년 2명 중 1명 '번아웃' 경험...진로 불안 완화해야"

연합뉴스_2026.9.7.

모친 폭행에 '도박 서클'...청소년 1천700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연합뉴스_2026.9.7.

정서위기 학생 7만명인데...학교 10곳 중 6곳 전문상담교사 없어

연합뉴스_2026.9.7.

노인

"204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연합뉴스_2026.9.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전세계 노인인구, 인류사 최초로 영유아 추월…韓 2060년 최고령국](#)

연합뉴스_2026.9.4.

[96세 남편이 94세 아내 폭행… ‘노노학대’ 느는데 묘수가 없다](#)

국민일보_2026.9.7.

경제 • 기업

[대기업 상반기 평균급여 5천499만원…전년대비 7.1% ↑](#)

연합뉴스_2026.9.2.

[고용허가제 외국인 28.7만명 '역대 최대'…80%는 제조업](#)

연합뉴스_2026.9.2.

[SI붐에 전세계 억만장자 자산 2경원 첫 돌파…29명이 27% 보유](#)

연합뉴스_2026.9.5.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첫 10%대 진입…민간기업도 격차 좁혀져](#)

연합뉴스_2026.9.7.

[회사 면접 따라온 부모 "우리 애한테 압박 질문 말아달라"](#)

조선일보_2026.9.3.

국제 • 환경

[결혼 안 한다는 청년들, 이유는 달라…韓 "돈 없어 포기" 日 "내 삶이 우선"](#)

매일경제_2026.8.30.

건강

[온열질환 사망자 5년새 4배로…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연합뉴스_2026.9.7.

기독교 • 종교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육' 원하는데…교회는 여전히 '격려'뿐](#)

데일리굿뉴스_2026.9.1.

트렌드

[무응답의 시대… Z세대 통화 속 “여보세요”가 사라진다](#)

국민일보_2026.9.7.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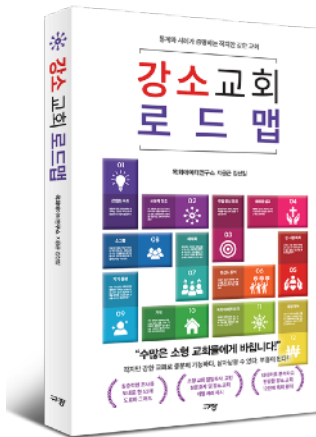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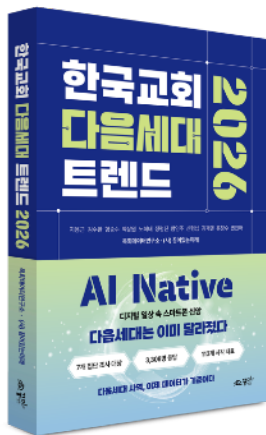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라잇나우미디어 9월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9월 [데이터로 읽는 한국교회,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에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 1) 일정 : 2026년 9월 17일(목) 14:00~16:00
- 2) 강사 : 김준영 대표(제이어스(J-US) 미니스트리, (주)자이온앤컴퍼니)
- 3)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4) 참가비 : 무료
- 5) 신청/문의 : 1533-7104(문자가능)

[신청 링크](#)

출판기념회 초대 안내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출판기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책을 오는 9월 말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셔서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0:00 ~ 11:30
- 2) 장소 : 서울YWCA 4층 대강당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 3) 프로그램 : 기념식, 주요 내용 발표 및 저자 소개, 질의 응답
- 4) 문의 : 02-322-0726

[참석 신청 링크](#)

-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본인 부담)
- ※ 오시는 분들(참석 신청자)에 한해 책 1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